가성비 좋은 웹예능 OTT도 뛰어들다

'여고추리반' '어바웃…' 오리지널 콘텐츠 승부
제작비 적게 들고 구독자 수요 맞아 떨어져
가능성·기회 많지만 성공 힘든 장르 지적도

티빙의 '여고추리반'과 웨이브의 '어바웃타임', KT 시즌의 '싱스테이'….

가성비 좋은 웹예능 시장에 국내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들까지 저마다 뛰어들어 '오리지널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다.

자본이 풍부한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 시장이 진출한 직후부터 유재석 등 호화로운 캐스팅을 내세워 '범인은 바로 너!'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다. 에이앤이 네트웍스 등이 '네고왕' 같은 웹예능으로 한국 시장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전례도 있다.

이에 비해 토종 OTT들의 웹예능은 자사 채널에서 방송되기도 해 온전히 독점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는 진정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내놓는 추세다.

CJ ENM의 경우 JTBC와 OTT 합작법인을 선언한 후 tvN '대탈출', '더 지니어스' 등을 탄생시킨 제작진에게 티빙 오리지널 예능 '여고추리반'의 연출을 맡겼다. 멤버로는 '대세' 장도연과 웹예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MC 재재 등을 캐스팅했다.

웨이브의 '어바웃타임' 역시 강호동, 이수근, 신동을 MC로 내세우고 빙속 여제 이상화와 스타 강사 김미경, 가수 유노윤호, 프로게이머 이상혁, 국민MC 송해 등을 게스트로 내세워 '유명인사의 시간을 경매한다'는 콘셉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즌은 '싱스테이' 시리즈와 '젝키오락관', '빽투더아이돌' 등 앞선 두 플랫폼과 비교해 아이돌을 내세운 웹예능들을 내세워 팬덤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OTT들이 오리지널 예능 제작에 골몰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능이 드라마보다는 제작비가 적게 들고, 그러면서도 구독자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면 기대 이상의 가성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4일 "예능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적은데, 소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라면 보편적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팬덤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적으로 찾아보는 콘텐츠가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진입장벽을 낮춰준 그 '가성비'는 말 그대로 가성비일 뿐 '대박'을 안겨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평론가는 "웹예능을 OTT의 주류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오리지널 콘텐츠는 해당 OTT의 대표성을 가질 만큼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웹예능들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도 웹예능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사례'를 꼽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인터랙티브'를 기본 속성으로 지닌 웹예능은 트렌드와 젊은 시청자를 겨냥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공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가능성과 기회는 많지만 좀처럼 성공하기는 힘든 장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조선-MBN '트로트 표절' 소송전, 방송가 풍토 바꿀까

"치밀한 계산 소송 제기" 지적
"무분별 베끼기는 근절돼야"

최근 TV조선과 MBN 간 트로트 예능 표절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오랜 세월 만연한 포맷 도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TV조선의 치밀한 계산이 밑바탕 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가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치밀한 계산 소송 제기…어느 방송사도 자유로울 수 없어"

TV조선의 MBN을 향한 '선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치밀한 계산에 따른 소송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V조선은 지난 18일 MBN의 '보이스트롯'·'보이스퀸'과 '트롯파이터'가 각각 자사의 '미스트롯'·'미스터트롯' 시리즈와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의 포맷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이 소송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그 아래에는 다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TV조선의 위상을 드높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조임을 강조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라며 "또 최근 트로트에 대한 피로감이 극심해진 이유가 본인들이 아닌 타 방송사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듯하다"고 말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간판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TV조선의 전략"이라면서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권리 침해라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추후 방송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들이 일본 등 해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포맷 도용은 이미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TV조선을 포함해 모든 방송사가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MBN은 TV조선의 '자연애(愛) 산다'가 자사 간판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베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무분별한 베끼기는 근절돼야…지속적 문제 제기 필요"

양 방송사의 소송전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든 간에 방송가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던 포맷 도용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이 한창 논란이 됐는데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베끼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덕현 평론가는 "어떤 소재나 장르가 인기를 얻으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생산되면서 트렌드의 쏠림 현상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소재의 프로그램들은 그만큼 설 자리를 잃어버릴뿐더러 시청자들의 권리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베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이런 프로그램이 설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포맷 자체의 유사성은 표절로 판단되지 않는다. 대신 프로그램의 자막 처리나 영상 구성 등 표현 방식이 표절 시비를 가리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윤선희 교수는 "법원에서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좀 더 넓게 판단한 선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포맷 도용 관행을 근절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현빈 'APAN 스타 어워즈' 대상
"최고 파트너 손예진에 감사"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사진)이 올해 최고 드라마 스타의 영광을 차지했다.

현빈은 23일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20 APAN 스타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현빈을 포함해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의 공효진, JTBC '이태원 클라쓰'의 박서준, SBS TV '하이에나'의 김혜수, JTBC '부부의 세계'의 김희애 등 5명이 대상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현빈은 "2021년의 시작을 이렇게 큰 상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올 한해를 더 멋지게 잘 꾸며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혁이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 예진 씨에게 고맙다"며 "예진 씨가 잘 빚어낸 윤세리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리정혁이 더 멋지게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연인이자 작품의 상대역을 맡았던 배우 손예진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주최하는 'APAN 스타 어워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방송국의 드라마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이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